

광야에서 유랑하는 위기의 갈라디아 교회 — 갈라디아 교회의 서사 위치로서의 광야 —

김선욱*

1. 서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확립하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다. 또한 그들은 역사의 굴곡 가운데 시대와 세대를 거쳐 민족적인 위기의 순간마다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며 스스로를 책망하고 새로운 구원의 소망, 즉 새 출애굽을 갈망하게 된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의 사역은 출애굽 이미지를 반영하며, 구원의 의미를 새 출애굽의 관점에서 제시한다. 특별히 신약에서 출애굽 모티프는 바다, 광야, 산 등의 공간 배경을 통해 나타난다.¹⁾ 홍해 바다에서의 기적적인 탈출, 광야에서의 유랑 생활, 그리고 시내 산에서의 율법 수여 등은 출애굽의 중심 사건의 배경이 되며, 이러한 공간들은 출애굽을 회상하게 만든다. 복음서에서 예수의 사역은 바다, 광야, 산 등에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공간들은 예수의 구원 사역을 새 출애굽의 관점에서 전달해 주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²⁾ 예를 들어, 예수가 바다를 배경으로 풍

*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안양대학교 신약학 겸임교수. sunwook5394@hanmail.net.

1) 로즈(David Rhoads), 듀이(Johanna Dewey), 그리고 미키(Donald Michie)는 바다, 광야, 산, 강 등의 공간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지나온 역사적 사건들을 회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신학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David Rhoads, Joanna Dewey, and Donald Michie, *Mark as Story: An Introduction to the Narrative of a Gospel*, 2nd ed.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1999), 69-70.

2) 복음서와 관련하여 예수의 사역을 새 출애굽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해석한 저서들 중 마가복음과 관련하여 Rikki E. Watts, *Isaiah's New Exodus and Mark*, WUNT 2/88 (Tübingen: J. C.

량을 잠잠케 하고(막 4:35-41; 마 8:23-27; 눅 8:22-25) 물 위를 걸은(막 6:45-52; 마 14:22-33; 요 6:15-21) 사건들, 광야를 배경으로 시험 당하고(막 1:12-13; 마 4:1-11; 눅 4:1-13) 무리를 먹인(막 6:30-44; 마 14:13-21; 눅 9:10-17; 요 6:1-14; 막 8:1-10; 마 15:32-39) 사건들, 그리고 산을 중심으로 강론하고(마 5:1-7:29)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막 9:2-8; 마 17:1-13; 눅 9:28-36) 사건들 등은 바다, 광야, 산이라는 공간 배경을 통해 출애굽 사건들을 회상케 하며, 예수의 사역을 통한 새 출애굽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출애굽의 사건을 어디서 언급하고, 또한 어떻게 이해하며 적용하고 있는가? 바울이 출애굽 사건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곳은 고린도전서 10:1-13이며, 교훈을 위해 암시적으로 반영한 곳은 고린도전서 5:6-8이다.³⁾ 또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출애굽 사건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암시적으로 갈라디아 교회의 상태를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과 대응시키면서 교훈하고 있다.⁴⁾ 바울은 특

B. Mohr), 1997와 Andrew C. Brunson, *Psalm 118 in the Gospel of John: An Intertextual Study on the New Exodus Pattern in the Theology of John*, WUNT 2/158 (Tübingen: Mohr Siebeck, 2003)은 유용하게 참고할 만한 책이다. 참고, 사도행전의 경우 David Pao, *Acts and the Isaianic New Exodus*, WUNT 2/130 (Tübingen: Mohr Siebeck, 2000)가 있다. 필자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사역을 바다와 광야의 공간적 배경을 중심으로 새 출애굽의 관점에서 해석했는데, 그와 관련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선욱, “바다를 잠잠케 한 이적 이야기(막 4:35-41)에 나타난 새 출애굽 연구 — 바다에 나타난 공간 이해를 통한 출애굽 이미지 분석”, 『신약논단』 21 (2014), 365-408; 김선욱,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의 기적 이야기(막 6:45-52)에 나타난 출애굽 이미지 연구와 새 출애굽으로서의 신학적 의의”, 『신약연구』 15 (2016), 307-329; Sun Wook Kim, “The Wilderness as a Place of the New Exodus in Mark’s Feeding Miracles (Mark 6:31–44 and 8:1–10)”, *Biblical Theology Bulletin* 48 (2018), 62-75.

- 3) 최근에 출판된 Carla Swafford Works, *The Church in the Wilderness: Paul’s Use of Exodus Traditions in 1 Corinthians*, WUNT 2/379 (Tübingen: Mohr Siebeck, 2014)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5:6-8과 10:1-22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모저(Ulrich W. Mauser)는 신약과 구약 전체를 통해 광야의 신학적 의미를 연구하고, 특별히 바울의 서신서 중 고전 10:1-13에 나타난 바울의 광야 신학을 다룬다. Ulrich W. Mauser, *Christ in the Wilderness: The Wilderness Theme in the Second Gospel and Its Basis in the Biblical Tradition*, SBT 39 (London: SCM, 1963), 63-68. 참고, 루바니(Sanned Lubani)는 그의 논문에서 고전 10:1-13에 대한 연구사를 소개하고 있으며, 필자는 그의 논문에 나온 학자들을 열거한다. Sanned Lubani, “The Role of the Exodus Motif in 1 Corinthians 10:1-13: An Intertextuality Study”, Th.M.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Stellenbosch, 2014), 18-34; Andrew Bandstra, “Interpretation in 1 Corinthians 10:1-11”, *CTJ* 6 (1971), 5-21; Wayne Meeks, “‘And Rose up to Play’: Midrash and Paraenesis in 1 Corinthians 10:1-22”, *JSNT* 16 (1982), 64-78; William Baird, “1 Corinthians 10:1-13”, *Int* 44 (1990), 286-290; Gary D. Collier, “‘That We might not Crave Evil’: The Structure and Argument of 1 Corinthians 10:1-13”, *JSNT* 55 (1995), 55-75; J. Smit, “Do Not Be Idolaters’: Paul’s Rhetoric in First Corinthians 10:1-22”, *NovT* 39 (1995), 40-53.
- 4) Todd A. Wilson, “Wilderness Apostasy and Paul’s Portrayal of the Crisis in Galatians”, *NTS* 50 (2004), 550-569; Sylvia C. Keesmaat, “Paul and His Story: Exodus and Tradition in Galatians”, *HTB* 18 (1996), 133-168.

별히 출애굽 사건을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 즉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 가운데 불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의 모습을 윤리적 타락과 율법주의로 빠져들고 있는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나의 경고성 예로 제시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다시금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

본 논문은 바울이 광야(ἐρημος)라는 공간을 출애굽 사건과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하며, 그가 세운 교회들,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에게 교훈을 전달하는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비록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광야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았지만,⁵⁾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유랑 생활을 갈라디아 교회에 투영시키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유대 율법주의로 돌아가 종이 되지 말고, 복음 안에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기업을 얻으라고 경고와 권면을 한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갈라디아서에 암시된 광야 이미지를 출애굽 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처한 상황과의 유사성을 통해 발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율법의 종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약속된 유업을 얻을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서 광야에 머물러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려고 한다. 갈라디아서에 암시된 갈라디아 교회의 ‘서사 위치’(narrative location)는 광야이다.⁶⁾

필자는 방법론적으로 ‘신약의 구약 사용’에 나오는 ‘암시’(allusion)를 사용한다. 이 방법론과 관련하여 문학적 측면에서 단어상의 일치(verbal agreement) 등도 조사하지만, 특별히 상황적 측면에서 출애굽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갈라디아 교인들의 위기의 상황을 비교하고, 주제적 측면에서 종노릇, 되돌아감, 자유, 약속, 소망, 유업 등 출애굽과 갈라디아서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주제들의 연관성을 연구함으로써 유사성을 발견하고자 한다.

2. 광야의 이중적 특성과 중간기적 상태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탈출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놓여 있는 장소이다. 그들은 애굽

5)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ἐρημος를 4:27에서 한 번 사용하지만, 이 단어는 광야라는 명사가 아닌 홀로 된, 쓸쓸한, 황량한 등의 뜻을 가진 형용사로서 사용되고, 형용사의 독립적 용법에 따라 문맥상 홀로된 여인을 의미한다. W. Bauer, et al.,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Frederick William Danker, rev.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391-392.

6) Todd A. Wilson, “Wilderness Apostasy and Paul’s Portrayal of the Crisis in Galatians”, 570.

을 탈출하여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들은 사십 년이란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다(신 2:7; 8:2, 4).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놓여 있는 광야는 이중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⁷⁾ 중간기적 상태를 보여 준다. 한편으로,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 장소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광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요의 땅으로 가기 위해 거쳐가야 할 메마르고 척박한 장소이다. 따라서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노예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장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뎌 내야 할 장소이다. 그들은 광야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 불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지만,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 가운데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나아갔다. 이러한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난과 유혹에 대한 시험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약속에 대한 소망의 장소라는 이중적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광야는 부정적 측면에서 고난과 시험과 범죄의 장소이지만, 동시에 긍정적 측면에서 은혜와 보살핌과 소망의 장소이기도 하다. 또한 광야는 애굽으로 돌아가 노예의 삶으로 회귀할 것인가, 아니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 완전한 자유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 갈등을 가진 중간기적 상태를 보여 준다.

광야에 대한 신학적 이해와 연구는 사해 사본의 발견 이후 급속도로 이루어졌다.⁸⁾ 쿵란 공동체는 종말론적 소망, 즉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광야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종말의 때를 준비했다.⁹⁾ 그들은 모세를 따르던 세대와 자신들의 세대를 비교하면서, 일종의 ‘원시-종말 모형론’(Urzeit-Endzeit typology)의 형태를 보여 준다.¹⁰⁾ 쿵란 공동체 또한 구약에 나타나는 광야의

7) 참고, 스테그너(William Richard Stegner)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광야는 위험과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두 요소가 항상 결합되어 나오고, 후대의 일부 선지자들의 선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소망의 갱신이라는 모티프가 연결되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William Richard Stegner, “Wilderness and Testing in the Scrolls and in Matthew 4:1-11”, *BR* 12 (1967), 19.

8) Ibid., 18. 펑크(Robert W. Funk) 또한 광야는 묵시적이고 메시아적 소망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Robert W. Funk, “The Wilderness”, *JBL* 78 (1959), 205-214. 그는 브라운리(W. H. Brownlee), 다니엘루(Jean Daniélou), 맥카운(Chester Charlton McCown) 등의 연구를 언급하면서 복음서와 사해 사본(특히 The Manual of Discipline[또는 The Rule of Community라고도 불림], 1QS 8:14)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 40:3에 비추어 요한과 예수를 에세네 운동과 연관시키고 광야를 중요한 근거지로 제시한다. W. H. Brownlee, “John the Baptist in the New Light of Ancient Scrolls”, *Int* 9 (1955), 71-90; Jean Daniélou, *Les manuscrits de la Mer Morte et les origines du Christianisme* (Paris: L’Orante, 1957), 16, 18, 25; Chester Charlton McCown, “The scene of John’s Ministry and Its Relation to the Purpose and Outcome of His Mission”, *JBL* 59 (1940), 113-131.

9) William Richard Stegner, “Wilderness and Testing in the Scrolls and in Matthew 4:1-11”, 18.

10) Ibid.

두 가지 특성 모두를 가지고 있다.

부정적 측면에서 광야는 쿵란 공동체에게 시험의 장소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광야에서 사람과 사탄 모두에게 시험받는다고 믿었고, 이러한 시험은 근본적으로 율법 준수와 관련된 문제로 보았다.¹¹⁾ 그들은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로부터 분리되어 광야로 나아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해야 한다(1QS 8:13).¹²⁾ 또한 어둠의 천사(the Angel of Darkness)가 끊임없이 빛의 아들들(the sons of light)을 시험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진리의 천사가 그들을 도와준다고 믿었다(1QS 3:21-25).¹³⁾ 그들은 종말이 임하기 전인 시험과 시련의 시기 동안 모든 율법에 대해 스스로 완벽해야 한다(1QS 8:1-4).¹⁴⁾ 스테그너(William Richard Stegner)는 이러한 본문들 안에 ‘광야로 나아가감’, ‘율법 준수’, 그리고 ‘시험의 시기’라는 요소들이 함께 나타나고, 쿵란 공동체는 광야를 시험의 장소로 보면서 동시에 율법 준수를 통해 스스로를 정결케 하며 종말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¹⁵⁾ 그는 또한 복음서에서도 이러한 특징들을 발견한다. 이 세 요소들은 마태복음 4:1-11의 예수의 시험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¹⁶⁾ 모세에 속한 첫 이스라엘은 광야의 시험에서 실패했지만, 새 이스라엘인 메시아는 율법을 통해 광야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이긴다.¹⁷⁾ 이렇게 광야는 쿵란 공동체와 복음서 모두

11) Ibid., 21.

12) Ibid. ‘…그들은 광야로 나아가 그의 길을 열기 위해 죄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필자 역; “...[T]hey are to be segregated from within the dwelling of the men of sin to walk to the desert in order to open there His path” [1QS 8:13]). Florentino García Martínez, ed., *The Dead Sea Scrolls Translated: The Qumran Texts in English*, Wilfred G. E. Watson, trans., 2nd ed. (Leiden: E. J. Brill, 1996), 12.

13) William Richard Stegner, “Wilderness and Testing in the Scrolls and in Matthew 4:1-11”, 21. ‘...어둠의 천사로 인해서 모든 의의 아들들이 그릇된 길로 빠지고, ...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의 진리의 천사가 모든 빛의 아들들을 도운다. ...’ (필자 역; “...Due to the Angel of Darkness all the sons of justice stray, ... However, the God of Israel and the angel of his truth assist all the sons of light. ...” [1QS 3:21-25]). Florentino García Martínez, ed., *The Dead Sea Scrolls Translated: The Qumran Texts in English*, 6.

14) William Richard Stegner, “Wilderness and Testing in the Scrolls and in Matthew 4:1-11”, 22. ‘...율법에 나오는 모든 것들에 완벽하고 ... 의를 행하고 시련을 경험함에 있어서 ...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필자 역; “...[p]erfect in everything that has been revealed about all the law ... to preserve faithfulness ... , doing justice and undergoing trials ...” [1QS 8:1-4]). Florentino García Martínez, ed., *The Dead Sea Scrolls Translated: The Qumran Texts in English*, 6.

15) William Richard Stegner, “Wilderness and Testing in the Scrolls and in Matthew 4:1-11”, 23.

16) Ibid., 27.

17) Ibid., 마태복음에서 예수가 받은 세 가지의 시험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세 가지 시험과 평행을 이룬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이 떡을 달라고 불평하는 것과 평행을 이루고(출 16장),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리라는 시험은 그들이 맛사와 트리바에서 물을 달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계심을 의심하는 것과 평행을 이루며(출 17장),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라는 시험은 그들이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것과 평행을 이룬다(출 32장).

시험과 유혹과 시련의 장소로 제시된다.¹⁸⁾

긍정적 측면에서 광야는 쿵란 공동체에게 종말의 때에 메시아가 임하고 잔치가 벌어지는 소망의 장소이다. 그들은 광야에서 삶의 터전과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천 명씩, 백 명씩, 오십 명씩, 열 명씩 그룹을 만들었듯이(출 18:21; 민 31:14; 신 1:15), 쿵란 공동체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그룹을 지어 공동체를 구성했다(1QS 2:21-23; CD 13:1; 1QM 4:1-5:17; 1QSa 1:14-15, 28-29).¹⁹⁾ 그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여기고 광야에서 메시아 잔치에 참여할 것을 기대했다.²⁰⁾ 쿵란 공동체의 메시아 잔치의 소망은 다음의 글에 잘 나타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그들과 함께 낳으실 때, 공동체 회의의 모집에 소환된 유명한 자들의 회합이다. 그리고 그들이 새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 공동체 식탁에 모이고, 공동체 식탁이 준비되며, 새 포도주가 음료로 만들어질 [때], [어느 누구도] 제사장보다 앞서 그의 손을 빵과 [새 포도주]의 첫 열매에 [뺨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는] 빵과 새 포도주의 첫 열매를 [축복하고], 그들 앞에 놓여 있는 빵을 향해 그의 손을 [뺨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 후에,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빵을 향해 그의 손을 뺨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공동체의 모든 회중을 각각의 품위에 따라 축복할 것이다. (1QSa 2:11-22)²¹⁾

광야에서의 메시아 잔치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급식 이적(막 6:31-44; 8:1-10)에서도 잘 나타난다. 예수는 출애굽의 이스라엘 민족과 쿵란 공동체처럼 광야에서 무리들을 백 명씩, 오십 명씩 그룹을 지어 앉힌다

18) Ibid., 18.

19) Robert A. Guelich, *Mark 1-8:26*, WBC 34A (Nashville: Thomas Nelson, 1989), 341; Joachim Gnilka, *Das Evangelium Nach Markus: Mk 1-8,26*, 5th ed., EKK (Zürich: Benziger Verlag, 1998), 260-261.

20) M. Eugene Boring, "Messianic Banquet", Katharine Doob Sakenfeld, ed., *The New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vol. 4 (Nashville: Abingdon, 2009), 66-67; Sun Wook Kim, "The Wilderness as a Place of the New Exodus in Mark's Feeding Miracles (Mark 6:31-44 and 8:1-10)", 68.

21) 필자 역; "This is the assembly of famous men, [those summoned to] the gathering of the community council, when [God] begets the Messiah with them... And [when] they gather at the table of community [or to drink] the new wine, and the table of community is prepared [and] the new wine [is mixed] for drinking, [no-one should stretch out] his hand to the first-fruit of the bread and of the [new wine] before the priest, for [he is the one who bl]esses the first-fruit of bread and of the new wine [and stretches out] his hand towards the bread before them. Afterwards, the Messiah of Israel shall stretch out his hand towards the bread. [And afterwards, shall] bless all the congregation of the community, each [one according to] his dignity." Florentino García Martínez, ed., *The Dead Sea Scrolls Translated: The Qumran Texts in English*, 127.

(6:40). 이러한 모습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종말론적 공동체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²²⁾ 그들은 메시아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로 예수께서 차고 넘치게 먹이심으로 메시아의 은혜롭고 풍성한 잔치의 수혜자가 된다. 특별히 마가는 광야에 “푸른 잔디”(χλωρός χόρτος, 6:39)가 펼쳐진 것으로 생생하게 묘사하는데,²³⁾ 이는 광야의 종말론적 변화를 강하게 표출한다.²⁴⁾ 황폐한 광야가 신록의 초원으로 바뀌고(예, 시 68:7-10), 에덴과 같이 변화되어(예, 사 51:3) 기쁨과 감사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된다.²⁵⁾ “떼를 지어”(συνπόσια συνπόσια, in groups, 막 6:39)로 번역된 그리스어 συνπόσιον은 문자적으로 주연(酒宴, drinking party)을 의미하지만, 연회(宴會, banquet)로도 이해할 수 있으며,²⁶⁾ 이는 예수에 의해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²⁷⁾ 또한 “~씩, ~씩”(πρασιαὶ πρασιαί, in groups, 6:40)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πρασιά는 문자적으로 ‘정원 터’(garden plot)를 가리키는데,²⁸⁾ 마치 사람들이 푸른 잔디에 채소밭처럼 그룹으로 줄지어 있는 인상적인 장면을 연출하게 만든다.²⁹⁾ 따라서 이러한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이면들을 통해 예수가 무리들을 먹이시는 모습은 종말론적인 메시아 잔치를 암시하며, 광야는 이러한 잔치가 풍성하게 펼쳐지는 장소로 제시된다.³⁰⁾

구약의 출애굽에 나타난 광야의 이중적 특징은 이후의 다양한 문헌들, 특히 앞서 살펴본 신약 시대의 쿰란 문헌과 복음서 등에서 모형론적 차원으로 새롭게 묘사된다. 부정적 측면에서 신약의 문헌들 또한 광야를 시험의 장소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여 실패한 그곳에서

22) Adela Yarbro Collins, *Mark: A Commentary*, Harold W. Attridge, ed., (Minneapolis: Fortress, 2007), 325.

23) 참고, 프란스(R. T. France)에 따르면 마가가 푸른 잔디를 언급한 동기는 시 23:2에서 목자가 양떼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것과 같이 예수를 목자로 묘사(막 6:34)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동시에 이 사건이 잔디가 말라서 갈색으로 변하기 전인 봄에 일어난 것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도 여겨진다. R. T. France, *The Gospel of Mark: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NIGTC (Grand Rapids: Eerdmans, 2002), 267.

24) Sun Wook Kim, “The Wilderness as a Place of the New Exodus in Mark’s Feeding Miracles (Mark 6:31-44 and 8:1-10)”, 70-71.

25) Ibid., 70; Ulrich W. Mauser, *Christ in the Wilderness: The Wilderness Theme in the Second Gospel and Its Basis in the Biblical Tradition*, 136.

26) W. Bauer, et al.,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959.

27) Adela Yarbro Collins, *Mark: A Commentary*, 310.

28) W. Bauer, et al.,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860.

29) R. T. France, *The Gospel of Mark: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267.

30) Sun Wook Kim, “The Wilderness as a Place of the New Exodus in Mark’s Feeding Miracles (Mark 6:31-44 and 8:1-10)”, 72.

예수는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한다. 긍정적 측면에서 출애굽의 이스라엘 민족은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피심과 공급하심 가운데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소망하였고,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메시아의 오심과 함께 광야는 생명력이 넘치는 푸르른 장소로 변하여 메시아 잔치가 펼쳐진다. 모형론이란 구속사적 관점에서, 앞선 사건은 하나의 모형으로 제시되고, 현재의 사건이 모형으로 제시된 사건을 새로운 구원의 차원에서 종말론적으로 완전히 성취한다는 것을 뜻한다.³¹⁾ 광야는 종말론적이고 구속사적 차원에서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모형론을 보여 주는 중요한 배경으로 역할하며, 또한 광야 그 자체가 모형론적 성취의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광야를 통해 모형론을 제시하고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출애굽 광야 사건을 직접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언급한 본문에서 광야는 종말론적이고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모형론의 배경이나 대상으로 묘사되었다기보다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민족이 시험받아 범죄를 저지르고 동시에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장소로서 경고와 권면의 차원으로 제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³²⁾ 그리고 바울은 광야를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이중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지만, 동시에 율법의 종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복음의 자유를 누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시험과 소망의 중간기적 상태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광야는 메시아적 성취가 이루어지는 모형론적 차원의 장소가 아니라, 노예의 상태의 회귀냐 아니면 약속된 하나님의 기업으로 들어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장소이다.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시험받으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도 불신앙의 위기 가운데 광야에 있으면서 결단해야 할 순간에 놓여 있다고 본다.

3. 시험의 장소로서 암시된 광야의 부정적 측면

최근의 많은 수의 학자들은 갈라디아서의 중심 주제가 이신칭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양한 주제들을 제시한다. 키스맷(Sylvia C. Keesmaat)은 이

31) F. F. Bruce, "Typology", I. H. Marshall, et al., eds., *New Bible Dictionary*, 3rd ed. (Downers Grove: Illinois, 1971), 1214. 브루스(F. F. Bruce)는 두 가지의 중요한 모형론의 측면들, 즉 태초의 창조와 애굽으로부터의 출애굽과 관련하여 새 창조와 새 출애굽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32) Sanned Lubani, "The Role of the Exodus Motif in 1 Corinthians 10:1-13: An Intertextuality Study", 100.

러한 학자들 중 대표적으로 세 명을 언급한다.³³⁾ 마틴(J. Louis Martyn)은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적극적 개입 사이의 대조와 계시와 관련하여 묵시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³⁴⁾ 가벤타(Beverly Roberts Gaventa)는 기독교론과 새 창조를 핵심으로 보며,³⁵⁾ 헤이스(Richard B. Hays)는 십자가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공동체의 특성에 중점을 둔다.³⁶⁾ 키스맷은 이 연구들이 갈라디아서를 이신칭의라는 협소한 관점에서 벗어나 광의적이고 통합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말한다.³⁷⁾ 그녀는 여기에 덧붙여 좀 더 포괄적 차원에서 갈라디아서를 출애굽 모티프와 연결시켜 이해한다.³⁸⁾ 출애굽 모티프는 주제적 측면에서 ‘노예 상태와 자녀됨’, ‘약속과 유산’, ‘노예 상태와 자유’로 대조시켜 파악될 수 있고,³⁹⁾ 상황적 측면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한 위기 상태의 유사성을 비교하면서 발견될 수 있다.⁴⁰⁾

윌슨(Todd A. Wilson)은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상황적 측면을 더욱 부각시키면서, 갈라디아 교회의 심각한 위기 상태를 출애굽 때 이스라엘 민족이 보였던 불신앙과 관련하여 이해한다.⁴¹⁾ 그는 갈라디아서에서 출애굽 이미지들과 모티프들이 — 예들 들면, ‘속량, 노예 상태와 자유, 양자됨,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유산, 새 창조’ — 곳곳에서 발견된다고 말한다.⁴²⁾ 심지어 그는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바울의 논증 흐름과 출애굽 이야기의 사건들 순서 사이에 놀랄만한 평행이 있다고 주장한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 → 노예 상태로부터 속량 → 아들들로 입양 → 약속의 상속자들 →

33) Sylvia C. Keesmaat, “Paul and His Story: Exodus and Tradition in Galatians”, 147.

34) J. Louis Martyn, “Apocalyptic Antinomies in Paul’s Letter To the Galatians”, *NTS* 31 (1985), 410-425; J. Louis Martyn, “Events in Galatia: Modified Covenantal Nomism versus God’s Invasion of the Cosmos in the Singular Gospel: A Response to J. D. G. Dunn and B. R. Gaventa”, *Pauline Theology, Volume 1: Thessalonians, Philippians, Galatians, Philemon*, Jouette M. Bassler, ed. (Minneapolis: Fortress, 1991), 160-179.

35) Beverly Roberts Gaventa, “The Singularity of the Gospel: A Reading of Galatians”, *Pauline Theology, Volume 1: Thessalonians, Philippians, Galatians, Philemon*, Jouette M. Bassler, ed. (Minneapolis: Fortress, 1991), 147-159.

36) Richard B. Hays, “Christology and Ethics in Galatians: The Law of Christ”, *CBQ* 49 (1987), 268-90; Richard B. Hays, “Crucified with Christ: A Synthesis of the Ideology of 1 and 2 Thessalonians, Philemon, Philippians and Galatians”, *Pauline Theology, Volume 1: Thessalonians, Philippians, Galatians, Philemon*, Jouette M. Bassler, ed. (Minneapolis: Fortress, 1991), 227-246.

37) Sylvia C. Keesmaat, “Paul and His Story: Exodus and Tradition in Galatians”, 134.

38) Ibid.

39) Ibid., 134-143.

40) Ibid., 143-147.

41) Todd A. Wilson, “Wilderness Apostasy and Paul’s Portrayal of the Crisis in Galatians”, 550-570.

42) Ibid., 551.

왕국의 유업'(참고. 갈 3:6-29; 4:1-7; 5:21).⁴³⁾ 그는 특별히 갈라디아서의 네 개의 본문들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때 행한 범죄를 회상케 하고,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에 적용시키고 경고하는 패턴을 발견한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은 출애굽 때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회상하게 만들며, 갈라디아 교회의 변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배교를 떠올리게 한다.⁴⁴⁾

출애굽 구원 모티프	광야 배교 모티프
1:1-4: '이 현재의 악한 세대에서 건지 시다'	1:6-7: "이같이 속히 떠나"
4:3-7: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 고 양자로 삼으셨다'	4:8-9: '다시 돌아가서 종이 되다'
4:21-5:1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 유롭게 하셨다'	5:1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5:13상: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다'	5:13하-26: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⁴⁵⁾

월슨은 바울이 출애굽 모티프를 사용할 때 특별히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배교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그가 전했던 복음을 거부하고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갈라디아 교회에 경고하고 있다고 본다.⁴⁶⁾ 바울에게 있어서 갈라디아 교회 또한 광야에서 유랑하는 출애굽의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처럼 배교하여 종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약속의 자녀로서 유업을 얻으러 나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회의 서사 위치는 광야가 된다.⁴⁷⁾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가 실제로 광야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배교했던 장소가 광야였던 것처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또한 마치 이스라엘 민족처럼 광야에서 배교의 기로에 처해 있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갈라디아서에는 광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유랑 생활에 대한 내용도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가 처한 위기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보여 주는 불신앙의 상태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⁴⁸⁾ 따라서 바울의 광

43) Ibid.

44) Ibid., 552.

45) Ibid., 552-553. 월슨(Todd A. Wilson)은 5:13하-26에서 광야 배교 모티프가 있는지 다소 불명확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 본문과 광야 이야기 사이에 단어상의 분명한 일치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46) Ibid., 570.

47) Ibid.

48) Ulrich W. Mauser, *Christ in the Wilderness: The Wilderness Theme in the Second Gospel and Its Basis in the Biblical Tradition*, 66.

야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출애굽 모티프에서 암시적으로 발견되는 광야의 특성과 역할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는 앞서 광야의 이중적 특성인 시험과 소망에 — 물론 다양한 많은 특성들을 발견할 수 있지만 — 대해서 출애굽의 역사적 사건과 쿰란 공동체 문헌과 복음서에서 살펴보았다. 많은 세대를 거쳐 오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 대해 부정적이면서 동시에 긍정적인 대조적 특성들을 인식해 왔다. 바울 또한 예외는 아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시험받았듯이 교회 또한 시험받을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젓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약속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갔듯이 교회 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대한 약속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이스라엘 민족처럼 광야에 놓여서 시험받고 있지만, 약속에 대한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갈 것을 요구한다.

서사적 차원에서 갈라디아 교회는 광야에 놓여 있다. 부정적 측면에서 그들은 시험받고 있다. 바울의 관점에서 갈라디아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⁴⁹⁾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변질시키고 교회를 이간하여 그들을 다시금 율법의 노예 상태로 만들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다(1:7, 9; 4:17; 5:10).⁵⁰⁾ 하지만 무엇보다도 바울이 놀란 것은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1:6에서 “이같이 속히”로 번역된 그리스어 οὕτως ταχέως는 출애굽기 32:8(칠십인역)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배교할 때 나오는 ταχύ(“속히”)라는 단어와 유사성을 보인다(참고. 신 9:16; 사 2:17).⁵¹⁾ 또한 “떠나다”로 번역된 그리스어 μετατίθημι는 마카베오하 7:24에서 유대인이 지켜야 할 삶의 방식, 즉 “조상들의 관습”을 버리는

49) Sylvania C. Keesmaat, “Paul and His Story: Exodus and Tradition in Galatians”, 147.

50) 카슨(D. A. Carson)과 무(Douglas J. Moo)에 따르면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상황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변질되고, 할례가 강조되고, 여전히 방탕했으며, 바울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는 것이다. 바울의 눈에는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동시에 방탕함으로 타락하여 완전히 복음을 떠나버릴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보였다. D. A. 카슨, 더글라스 J. 무, 『신약개론』, 엄성욱 역, 개정판 (서울: 은성, 2006), 527-531.

51) 토마스 R. 슈라이너, 『강해로 푸는 갈라디아서』, 김석근 역, 개정판, ZECNT (서울: 디모데, 2017), 87-88; 더글라스 J. 무, 『갈라디아서』, 최원용 역, BECNT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8), 113; Richard N. Longenecker, *Galatians*, WBC 41 (Dallas: Word, 1990), 14; James D. G. Dunn,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BNTC (Peabody: Hendrickson, 1993), 40; Scott J. Hafemann, *Paul Moses, and the History of Israel: The Letter/Spirit Contrast and the Argument from Scripture in 2 Corinthians 3*, WUNT 2/81 (Tübingen: Mohr Siebeck, 1995), 195-204, 227-231; Roy E. Ciampa, *The Presence and Fuction of Scripture in Galatians 1 and 2*, WUNT 2/102 (Tübingen; Mohr Siebeck, 1998), 76-77; Todd A. Wilson, “Wilderness Apostasy and Paul’s Portrayal of the Crisis in Galatians”, 557-558.

배교의 행위를 가리키고 있으며,⁵²⁾ 바울은 이 단어를 계속적인 진행을 의미하는 현재 시상으로 사용함으로써 갈라디아 교회의 배교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말한다.⁵³⁾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출애굽의 금송아지 사건 때 이스라엘 민족이 “길을 속히”(ταχὺ ἐκ τῆς ὁδοῦ, 출 32:8) 떠났다고 표현하는데, 사사기 2:27에서 배교를 묘사할 때에도 동일한 어구가 사용된다. 초대 교회에서 “길”(ὁδός)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스스로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다(참고. 행 9:2; 19:9, 23; 22:4; 24:14, 22; 이 구절들에서 『공동개정』은 “도”로 번역함).⁵⁴⁾ 만일 바울이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며 글을 쓰고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명령한 길을 떠나 배교하듯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주의 도를 떠나 배교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⁵⁵⁾ 롱게네커(Richard N. Longenecker)에 따르면, “이같이 속히”라는 표현은 시간적 측면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회심과 배교 사이의 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할 수 있지만, 그보다 수사적 측면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금송아지 배교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⁵⁶⁾ 바울의 시각에서 보면 갈라디아 교회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떠나고 있는 상황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배교했던 사건과 유사한 상황인 것이다.⁵⁷⁾ 따라서 갈라디아 교회가 위치한 ‘서사적 장소’는 이스라엘 민족이 배교했던 광야이다.

바울은 그의 서신 초반(갈 1:6-7)부터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심각한 위기의 상태를 출애굽 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배교했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글을 쓰고 있다. 그는 계속적으로 아브라함(4:6-9)과 율법 수여(4:17-22)의 두 가지 예를 들어 자신의 복음을 논증한다. 하갈과 사라의 비유(4:21-31)도 표면상으로 아브라함과 연관된 예로 보이지만 바울은 두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 시내 산을 언급하면서 출애굽을 연상케 한다. 따라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과 출애굽 광야 사건을 두 축으로 자신의 논증을 펼쳐 나간다. 그리고 곳곳에 암시적으로 아브라함과 출애굽 광야 사건을 연상케 하는 내용들로 율법과 복음을 대조시킨다.

52) 토마스 R. 슈라이너, 『강해로 푸는 갈라디아서』, 87. 『공동개정』을 참조함. 마카베오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배교에 대해 서술하고 있고, 이 동사는 명사 형태를 포함해서 배교를 언급할 때 사용된다(2마카 4:46; 7:24; 11:24). James D. G. Dunn,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39-40.

53) Ibid.; 더글라스 J. 무, 『갈라디아서』, 113.

54) Richard N. Longenecker, *Galatians*, 14.

55) Ibid.

56) Ibid.

57) 최갑종, 『갈라디아서』 (서울: 이레서원, 2016), 181; F. Mussner, *Der Galaterbrief*, 5th ed., HTKNT 9 (Freiburg: Herder, 1988), 53.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보여 준 또 다른 대표적인 불신앙의 예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것이다.⁵⁸⁾ 그들은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했지만 바로의 군대가 맹렬히 뒤쫓아 오고 홍해로 가로막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모세를 향해 울부짖으며 애굽으로 돌아가 종노릇 하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비난한다(출 14:10-12). 그들은 광야에서 먹을 음식과 물이 없을 때 또다시 원망하며 애굽에서 배불리 먹던 때가 좋았다고 불평한다(출 16:3; 17:3; 참고. 민 11:4-6). 더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으로부터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을 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고 원망한다(민 14:2-4). 급기야 그들은 한 명의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하며 반란까지 일으키려 한다(14:4). 광야는 위험과 고난과 시련이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노예가 되더라도 애굽으로 돌아가 육신적인 편안함을 추구하도록 끊임없이 시험하는 장소이다.

바울의 눈에는 갈라디아 교인들 또한 이러한 시험과 유혹에 흔들리는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우상의 노예 된 삶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지만 다시금 율법의 종으로 되돌아가려고 한다(갈 4:8-11). 갈라디아서 4:9에 나오는 ‘돌아가다’로 번역된 그리스어 동사 ἐπιστρέφω는 그리스도께로 회심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지만(행 3:19; 9:35; 11:21; 14:15; 19:15; 26:18, 20; 고후 2:16; 살전 1:9; 벧전 2:25), 바울은 이제는 이 동사를 갈라디아 교인들의 배교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다(참고. 벧후 2:22).⁵⁹⁾ 민수기 14:4(칠십인역)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휘관을 뽑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이 동사가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회상하며 기록한 느헤미야 9:17(칠십인역)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된다.⁶⁰⁾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우상 숭배를 종노릇하는(δουλεύω) 것이라고 보았다(갈 4:8). 하지만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유를 얻었다(4:31; 5:1; 참고. 5:13).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져온 결과를 ‘속량하다’(3:13; 참고. 4:5)로 표현하는데, 그리스어 ἔξαγοράζω는 바울 신학에서 구원을 묘사하는 중심 심상 가운데 하나로 노예를 값을 주고 해방시킨다는 뜻을 가리킨다.⁶¹⁾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십

58) Todd A. Wilson, “Wilderness Apostasy and Paul’s Portrayal of the Crisis in Galatians”, 561-563; 최갑중, 『갈라디아서』, 181.

59) 토마스 R. 슈라이너, 『강해로 푸는 갈라디아서』, 289-290.

60) Todd A. Wilson, “Wilderness Apostasy and Paul’s Portrayal of the Crisis in Galatians”, 562.

61) W. Bauer, et al.,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14. 그리스어 ἔξαγοράζω는 ἀγοράζω에 ἐκ가 붙은 합성 동사로 ἀγοράζω를 좀 더 강조하는 의미를 가진다. ἀγοράζω는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노예 상거래를 표현할 때 사용된다. Timothy George, *Galatians*, NAC 30 (Nashville: Broadman&Holman, 1994), 237-238.

자가 사역이 율법의 저주 아래 종 된 자들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든다고 말한다.⁶²⁾ 따라서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킨다.⁶³⁾

그런데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또다시 천박한 초등학문에게 돌아가 종노릇하려고 한다(4:9). 여기서 “초등학문”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στοιχειά(4:3에도 나옴)는 당시에 일반적으로 ‘기본 물질’ (‘근본 성분’)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지만, 학문적인 영역에서는 ‘필수적인 원리’로, 영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존재들’로 이해했다.⁶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지만, 당시 고대 세계관에서 물질 요소들이면에 영적 세력들이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단어는 ‘영적 세력과 연결된 기본 물질’로 이해할 수 있고, 바울은 아마도 그렇게 사용했을 것이다.⁶⁵⁾ 여기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종노릇 한다는 것은 그들이 이전에 숭배했던 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로 들어가 노예가 된다는 뜻으로, 바울은 대담하게 율법을 초등학문과 동일시하고 있다.⁶⁶⁾ 다시 말해,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교는 이교와 다를 바 없다는 뜻이다.⁶⁷⁾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배교 행위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그들이 단순히 율법주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를 떠나 배교한다는 의미이다. 갈라디아 교회는 광야에 유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된 기업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노예로 돌아가려는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

62) 토마스 R. 슈라이너, 『강제로 푸는 갈라디아서』, 225; Todd A. Wilson, “Wilderness Apostasy and Paul’s Portrayal of the Crisis in Galatians”, 562.

63) Ibid., 225.

64) 더글라스 J. 무, 『갈라디아서』, 347-348. 갈 4:3에서 초등학문은 ‘기본 물질’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덧붙여 ‘세상의 기본 원리들’과 관련하여 규칙과 관련된 할레나 음식 규율 및 절기 준수(4:10)를 함의하고, 또한 ‘우주의 기본적 영들’과 관련하여 물질과 연결된 영적 세력(4:8)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65) Ibid., 367; 존 스토틀, 『갈라디아서 강해』, 정옥배 역, BST (서울: IVP, 2007), 129-130.

66) 더글라스 J. 무, 『갈라디아서』, 367.

67) C. K. Barrett, *Freedom and Obligation: A Study of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Philadelphia: Westminster, 1985), 61.

4. 소망의 장소로서 암시된 광야의 긍정적 측면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광야에 대한 긍정적 측면도 보여 준다. 비록 바울은 광야를 주로 시험의 장소로 제시하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이 장차 얻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장소로 암시한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는 고난과 유혹으로 인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시험의 장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대한 강력한 소망을 품고 있는 장소이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에 대한 약속은 출애굽 사건 발생의 근본 원인이며 목표였다(출 3:7-9).⁶⁸⁾ 또한 후대 포로기 시대에도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업으로 얻은 땅으로 다시 귀환할 것을 새 출애굽의 차원에서 비전으로 제시하였다(예, 겔 36:8-12).⁶⁹⁾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또는 새 출애굽에서 유업으로 얻을 땅)은 갈라디아서에서 약속과 유업이라는 단어들을 통해 반영된다. 바울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βασιλείαν θεοῦ … κληρονομήσουσιν, 갈 5:21)과 동일한 것으로 여긴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총 13회), 무(Douglas J. Moo)가 주장하듯이 바울이 언급한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서에 나타난 ‘시작된 종말론’의 특성을 보여준다.⁷⁰⁾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며(롬 14:17; 고전 4:20; 15:24; 골 1:13; 4:11) 동시에 미래적이다(고전 6:9, 10; 15:50; 엡 5:5; 딤후 4:1, 18; 살전 2:12; 참고. 살후 1:5는 미래인지 현재인지 확정짓기 어려움).⁷¹⁾ 갈라디아서 5:21의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⁷²⁾ 이것은 ‘유업을 얻다’(κληρονομέω)라는 동사가 미래형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참고, 막 10:15; 마 7:21; 18:8-9; 19:17).⁷³⁾ 갈라디아 교인들은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유업을 얻을 자들이다. 하지만 그들이

68) Sylvia C. Keesmaat, “Paul and His Story: Exodus and Tradition in Galatians”, 138.

69) Ibid.

70) 더글라스 J. 무, 『갈라디아서』, 472.

71) Ibid.

72) Ibid.

73) Richard N. Longenecker, *Galatians*, 258. 롱게네커(Richard N. Longenecker)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표현은 바울이 초대 교회의 교리문답적 가르침(catechetical instruction)의 일부를 소개한 것으로,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제시된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발생하는 유혹과 시험의 상황을 이겨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 구절은 문맥상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을 윤리적 차원에서 진술한다(갈 5:16-21). 즉, 현재의 삶에서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싯딤에서 모압 여인과 음행하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여 형벌을 받은 사건(민 25:1-9)을 연상하게 만든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7-8에서도 출애굽의 금송아지 사건과 음행 사건(출 32:1-6; 민 25:1-9)을 언급하며, 고린도 교인들의 윤리적 삶에 대해 교훈하고 경고한다. 갈라디아 교인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음행과 우상 숭배 등의 육체의 일에 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광야의 긍정적인 측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현재의 악한 세대(갈 1:4)에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는 광야에서의 유혹과 시험의 육체의 일을 버려야 한다.

5. 광야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약속과 유업을 아브라함과 관련시켜 논증하고 있지만, 이 논증은 출애굽의 율법과 대조하면서 진정으로 유업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다. 약속과 유업에 대한 언급은 갈라디아서 3-5장에 중점적으로 나타나며(특히 3:14, 16-18, 19, 22, 28; 4:1, 7, 23, 28, 30; 5:21), 유업은 시내 산의 율법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으로부터 난 것이다.⁷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5:21)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에 속한 자이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약속)와 출애굽 이야기(율법)를 연대기적 차원의 논증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가 받을 것인가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3:15-18), 두 이야기를 혼합하여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통해서도 논증한다(4:21-31).

하갈과 사라의 비유는 다양한 심상들로 이루어져 있다. 옛 언약을 상징하는 하갈은 이스마엘,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 지금 있는 예루살렘의 심상들과 연결되고, 유대주의자들로 귀결된다.⁷⁵⁾ 이와는 대조적으로 새 언약

74) Sylvia C. Keesmaat, "Paul and His Story: Exodus and Tradition in Galatians", 139.

75) 최갑중, 『갈라디아서』, 536-537.

을 상징하는 사라는 이삭,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심상들과 연결되고, “우리”(4:31)로 표현되는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즉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로 귀결된다.⁷⁶⁾ 이 비유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관련된 것으로 두 명의 여인들과 그녀들에게서 태어난 두 명의 자녀들을 빗대어서 약속과 율법(특별히 4:24, 30)에 대해 설명한다. 하지만 이 비유는 출애굽 사건의 시내 산을 등장시키면서 율법에 대해 말하고, 땅과 하늘의 두 예루살렘을 빗대어서 종과 자유에 대해 설명한다.

이 비유에서 광야의 의미를 찾기 위해 출애굽 이미지가 반영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을 살펴본다(4:25). 바울은 하갈을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라고 말한다(4:24). 그가 하갈을 시내 산과 연결시킨 이유는 그녀를 모세의 시내 산 언약으로 대응시키기 위해서고, 또한 시내 산 언약의 율법은 속박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그녀에게 속한 자는 종이 될 수밖에 없다.⁷⁷⁾ 애굽으로부터의 탈출과 시내 산에서의 율법 수여는 이스라엘에게 종살이로부터의 해방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경축의 사건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범죄하여 율법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고 언약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결국 나라를 세운 후에도 또다시 패망하고 종살이 하게 된다.⁷⁸⁾ 바울의 관점에서 율법은 인간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속박을 가져다주고 종으로 전락시킨다.⁷⁹⁾

바울은 이어서 하갈을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이라고 부연 설명한다(4:25). 그렇다면 바울은 왜 굳이 시내 산을 아라비아에 있다고 지명을 구체화하여 재차 설명한 것일까? 그리고 출애굽 당시의 시내 산은 시나이 반도에 있었지,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한 것이 아니다. 어떤 고대 전승들에 따르면,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내 산은 아라비아 반도 지경 근처에 위치해 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⁸⁰⁾ 하지만 바울이 아라비아를 언급한 이유는 시내 산의 실제적인 지리적 위치를 말하고자 덧붙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메시지를 좀 더 비유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⁸¹⁾ 바울은 아라비아 지역에 대해 친숙해 있었고(1:17), 또한 이곳은 후대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동방 곧 동쪽 땅”(창 25:6, 18)으로 추방된 장소로 대중 가운데 알

76) Ibid., 536.

77) 토마스 R. 슈라이너, 『강제로 푸는 갈라디아서』, 314-315.

78) Ibid., 315.

79) Ibid., 314-315.

80) 참고, Timothy George, *Galatians*, 340-341.

81) James D. G. Dunn,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251.

려져 왔다.⁸²⁾ 여기서 율법의 수여 장소인 시내 산과, 하갈 및 이스마엘이 추방된 장소인 아라비아가 연결된다. 따라서 바울은 시내 산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아라비아가 함의하는 하갈 및 이스마엘의 종의 이미지와 결합시킴으로써 율법은 종노릇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아라비아를 언급한 또 다른 이유는 아라비아가 약속의 땅 밖에 있으며, 이것은 율법이 약속의 땅 안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광야의 유랑 생활 때 주어졌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 위해서다.⁸³⁾ 결국 율법의 요구를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여전히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서 종의 삶을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암시한다.⁸⁴⁾

바울은 마지막으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고 또다시 덧붙여 설명한다(갈 4:25). 여기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제시된다. 첫째는 믿지 않는 유대인 대적자들 또는 유대교로 이해하는 것이다.⁸⁵⁾ 예루살렘은 모든 율법 체제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율법을 근간으로 한 유대교나 율법 준수에 열심인 유대인들을 가리킨다.⁸⁶⁾ 둘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표방하는 바를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유대주의자들) 또는 유대식 기독교로 이해하는 것이다.⁸⁷⁾ 갈라디아서 전반에 걸쳐 바울이 논쟁하며 대조시키고 있는 것은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자신의 복음이다.⁸⁸⁾ 따라서 하갈과 사라의 대조를 통해서도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자신의 복음과 대척점에 있는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유대식 기독교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다.⁸⁹⁾ 슈라이너(Thomas R. Schreiner)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유대주의자들로 간주하지만, 그들이 유대교와 완전히 결별하지 않은 채로 율법을 구원의

82) Timothy George, *Galatians*, 341.

83) Dieter Lührmann, *Galatians*, CC, O. C. Dean, Jr., trans. (Minneapolis: Fortress, 1992), 90-91.

84) 토마스 R. 슈라이너, 『강해로 푸는 갈라디아서』, 316.

85) F. F. Bruce,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NIGTC (Grand Rapids: Eerdmans, 1985), 220; Ronald Y. K. Fung,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88), 209; David A. deSilva, *The Letter to the Galatian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2018), 399.

86) F. F. Bruce,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220.

87) Louis Martyn, *Galatian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33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8), 439; Richard N. Longenecker, *Galatians*, 217; F. Mussner, *Der Galaterbrief*, 325; M. C. de Boer, “Paul’s Quotation of Isaiah 54.1 in Galatians 4.27”, *NTS* 50 (2004), 380-382.

88) 토마스 R. 슈라이너, 『강해로 푸는 갈라디아서』, 316. 참고, Louis Martyn, *Galatian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439.

89) 참고, 최갑중, 『갈라디아서』, 536.

수단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표현에는 유대교가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⁹⁰⁾ 필자도 슈라이너의 견해를 따라서, 갈라디아서 전체에 흐르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바울의 경고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란 유대교 또는 유대인 대적자들이라기보다는 유대교에서 분리되지 못한 채 여전히 율법주의에 머물고 있는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 또는 유대식 기독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긴다. 동시에 이런 유대주의자들은 유대교의 율법체제의 근본적인 틀 안에 여전히 갇혀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란 표현에는 유대교가 반영되어 있다.

하갈과 사라의 두 축으로 이루어진 비유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대조하여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제시한다(4:26). 일반적으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사고에서 ‘위’는 ‘하늘’을 뜻하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천상의 예루살렘’ 또는 ‘새 예루살렘’ 등을 가리킨다.⁹¹⁾ 또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말론적 특성을 강하게 나타내며, 천상에 이미 존재하지만 마지막 날에 임할 완전한 예루살렘이 땅 위에 세워질 것을 소망한다(시 87:1-3; 겔 40-48; 바룩 4:2-6; 히 11:10, 14-16; 계 3:12; 21:2).⁹²⁾ 하지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단지 마지막 날에 있을 미래의 일이 아니다. 여기에 ‘시작된 종말론’의 특성이 보이며, ‘아직’과 ‘이미’의 종말론적 긴장이 나타난다. 즉,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현재의 악한 세대에 손을 뻗고 있으며, 장차 오는 세대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현재의 악한 세대 가운데 뚫고 들어 와 있다.⁹³⁾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히 12:22)으로, 그곳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된다.⁹⁴⁾ 바울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특성을 ‘자유’로 규정짓고,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한다(갈 4:26). 종인 하갈이 종을 낳듯이, 자유자인 사라는 자유자를 낳는다. 바울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갈라디아의 모든 성도들)⁹⁵⁾의 어머니라고 말한 것은 일차적으로 우리가 자유자인 사라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자유자라는 사실을 말해주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새 시대에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자라는 것을 가리킨다(4:29-30).⁹⁶⁾

90) 토마스 R. 슈라이너, 『강해로 푸는 갈라디아서』, 316.

91) 더글라스 J. 무, 『갈라디아서』, 400.

92) Ibid.

93) 토마스 R. 슈라이너, 『강해로 푸는 갈라디아서』, 317; Ronald Y. K. Fung,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210.

94) 토마스 R. 슈라이너, 『강해로 푸는 갈라디아서』, 317.

95) 여기서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일부 그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을 가리킨다. Richard N. Longenecker, *Galatians*, 215.

96) 토마스 R. 슈라이너, 『강해로 푸는 갈라디아서』, 317.

바울은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통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이 어디에 속해야 할 것인지를 말해 주고 있다. 하갈에게 속해 육체에 따라 난 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사라에게 속해 성령에 따라 난 자유인이 될 것인가의 결단이 갈라디아 교인들 앞에 놓여 있다. 바울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이란 표현을 통해 유대주의자들이 시내 산 율법에 얽매어 여전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종노릇하며 광야에 머물러 있음을 비난한다. 또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 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율법의 종으로 전락시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하게 만들고 있음을 보여 주며,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참된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한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광야에 머물러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어 다시금 율법의 굴레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아라비아의 시내 산”과 “지금 있는 예루살렘”의 심상을 통해 유대주의자들을 따르다는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유랑하며 다시금 종노릇하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바울은 이와 대조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심상을 제시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강력한 소망을 가지도록 일깨운다. 장차 임할 — 또는 언기 위해 나아갈 —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시간과 공간을 뚫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 또는 우리(갈라디아 교인들)가 그곳으로 들어가서 — 우리로 하여금 새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며 약속된 유업을 얻게 한다. 따라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거짓 유대주의 교사들을 따라 광야에서 더 이상 머물지 말고, 자유케 하는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참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것을 촉구한다. 즉, “지금 있는 예루살렘”(“아라비아의 시내 산”)을 떠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갈 것을 권면한다.

6. 결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광야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안에는 다양한 출애굽 이미지들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미지들 안에 광야를 반영하는 내용들이 나타난다. 바울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행했던 불신앙(배교)의 모습을 염두에 두면서 갈라디아서를 썼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배교에 이르는 불신앙의 행태를 갈라디아 교인들의 흔들리는 믿음의 모습과 대응시키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난과 시험이 찾아왔을 때 범죄하고 애굽으로 돌아

가려고 했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도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과 유혹에 흔들려 율법의 종으로 전락하려는 위기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약속된 유업을 얻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애굽으로 되돌아 갈 것인가 아니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의 선택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도 율법의 종으로 전락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얻을 것인가의 결단의 상황에 처해 있다. 바울의 눈에는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유랑하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또한 거짓 교사들의 교훈과 도덕적 타락의 위기 가운데 광야에서 방랑하고 있다. 따라서 갈라디아 교회가 놓여있는 서사적 위치는 광야이다.

출애굽의 역사적 사건의 배경이 되는 광야는 세대를 거쳐 오면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부정적이면서 긍정적인 이중적 특성과 중간기적 상태를 보여준다. 쿰란 공동체의 문헌과 복음서 또한 광야의 이중적 특성, 즉 시험의 장소로서의 부정적 특성과 소망의 장소로서의 긍정적 특성 모두를 나타낸다. 그리고 광야는 모험론적 차원에서 종말론적으로 새 시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배경으로 역할하며 동시에 성취의 대상 자체가 된다. 하지만 바울은 광야를 시험과 소망의 이중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을 모험론적 차원보다는 성도의 신앙과 관련된 중간기적 상태의 교훈과 경고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한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배교하듯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어 자신이 전한 복음을 속히 떠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먹을 음식과 물이 없어 불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 노예가 되려고 하듯이, 천박한 초등학문과 같은 율법으로 돌아가 종노릇하려고 한다. 갈라디아 교회는 광야에서 시험받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교훈에 빠져 율법의 종으로 전락하려는 위기 가운데 광야에 놓여 있다. 하지만 광야는 이러한 부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적 측면, 즉 약속에 대한 소망을 담지하고 있다. 광야의 유랑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소망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약속과 유업이라는 용어를 통해 강력한 소망을 제시한다. 비록 그들은 비록 현재의 악한 세대에서 광야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유혹과 시험을 이겨나가야 한다.

바울은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통해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광야의 생활을 떠나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것을 촉구한다. 갈라디아 교회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속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을 따라 종노릇하며 광야에서 머물지 말고, 자신들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해 성령으로 태어난 자유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율법의 굴레에 매여 종의 생활을 하는 광야의 삶을 떠날 것을 경고하고, 약속된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참된 자유를 누리라고 권면한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각 시대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재해석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자신의 시대 가운데 새롭게 이해하고 적용한다. 바울 또한 예외가 아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상황을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과 연결하여 구원의 의미를 전한다. 그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단순히 명제적 진술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해 역동적으로 제시한다. 출애굽은 역사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준다. 애굽에서의 탈출, 광야에서의 생활,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는 것이 출애굽의 기본적인 구원사적 틀이며 단계이다. 바울은 출애굽의 관점에서 갈라디아 교회가 광야에 놓여 있다고 본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시험받고 있다.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따라 율법의 종살이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바울의 자유케 하는 복음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것인가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바울은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며 갈라디아 교회의 구원사적 서사 위치를 광야로 놓는다. 그리고 광야에 유랑하는 위기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율법의 종으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동시에 약속된 유업을 소망하며 나아가라고 권면한다.

<주제어>(Keywords)

광야, 갈라디아 교회, 서사 위치, 시험, 소망, 유업.

wilderness, the churches of Galatia, narrative location, temptation, hope, inheritance.

<참고문헌>(References)

- 김선욱,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의 기적 이야기(막 6:45-52)에 나타난 출애굽 이미지 연구와 새 출애굽으로서의 신학적 의의”, 「신약연구」 15 (2016), 307-329.
- 김선욱, “바다를 잠잠케 한 이적 이야기(막 4:35-41)에 나타난 새 출애굽 연구 — 바다에 대한 공간 이해를 통한 출애굽 이미지 분석”, 「신약논단」 21 (2014), 365-408.
- 무, 더글라스 J., 『갈라디아서』, 최원용 역,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8.
- 슈라이어, 토마스 R., 『강해로 푸는 갈라디아서』, 김석근 역, 개정판, Zondervan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서울: 디모테, 2017.
- 스토트, 존, 『갈라디아서 강해』, 정옥배 역, Bible Speaks Today, 서울: IVP, 2007.
- 최갑종, 『갈라디아서』, 서울: 이레서원, 2016.
- 카슨, D. A., 무, 더글라스 J., 『신약개론』, 엄성욱 역, 개정판, 서울: 은성, 2006.
- Baird, William, “1 Corinthians 10:1-13”, *Interpretation* 44 (1990), 286-290.
- Bandstra, Andrew, “Interpretation in 1 Corinthians 10:1-11”, *Calvin Theological Journal* 6 (1971), 5-21.
- Barrett, C. K., *Freedom and Obligation: A Study of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Philadelphia: Westminster, 1985.
- Bauer, W., et al.,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Frederick William Danker, rev.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 Boring, M. Eugene, “Messianic Banquet”, Katharine Doob Sakenfeld, ed., *The New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vol. 4, Nashville: Abingdon, 2009, 66-67.
- Brownlee, W. H., “John the Baptist in the New Light of Ancient Scrolls”, *Interpretation* 9 (1955), 71-90.
- Bruce, F. F.,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85.
- Bruce, F. F., “Typology”, I. H. Marshall, et al., eds., *New Bible Dictionary*, 3rd ed., Downers Grove: Illinois, 1971, 1214-1215.
- Brunson, Andrew C., *Psalms 118 in the Gospel of John: An Intertextual Study on the New Exodus Pattern in the Theology of John*, Wissenschaftliche Untersuchungen zum Neuen Testament 2/158, Tübingen: Mohr Siebeck, 2003.

- Ciampa, Roy E., *The Presence and Fuction of Scripture in Galatians 1 and 2*, Wissenschaftliche Untersuchungen zum Neuen Testament 2/102, Tübingen: Mohr Siebeck, 1998.
- Collier, Gary D., “‘That We might not Crave Evil’: The Structure and Argument of 1 Corinthians 10:1-13”,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55 (1995), 55-75.
- Collins, Adela Yarbro, *Mark: A Commentary*, Harold W. Attridge, ed., Minneapolis: Fortress, 2007.
- Daniélou, Jean, *Les manuscrits de la Mer Morte et les origines du Christianisme*, Paris: L’Orante, 1957.
- de Boer, M. C., “Paul’s Quotation of Isaiah 54.1 in Galatians 4.27”, *New Testament Studies* 50 (2004), 370-389.
- deSilva, David A., *The Letter to the Galatians*,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2018.
- Dunn, James D. G.,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Black’s New Testament Commentary, Peabody: Hendrickson, 1993.
- France, R. T., *The Gospel of Mark: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New International Greek Testament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2002.
- Fung, Ronald Y. K.,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88.
- Funk, Robert W., “The Wildernes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78 (1959), 205-214.
- Gaventa, Beverly Roberts, “The Singularity of the Gospel: A Reading of Galatians”, Jouette M. Bassler, ed., *Pauline Theology, Volume 1: Thessalonians, Philippians, Galatians, Philemon*, Minneapolis: Fortress, 1991, 147-159.
- George, Timothy, *Galatians*, New American Commentary 30,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4.
- Gnilka, Joachim, *Das Evangelium Nach Markus: Mk 1-8,26*, 5th ed., Evangelisch-Katholischer Kommentar zum Neuen Testament, Zürich: Benziger Verlag, 1998.
- Guelich, Robert A., *Mark 1-8:26*, Word Biblical Commentary 34A, Nashville: Thomas Nelson, 1989.
- Hafemann, Scott J., *Paul, Moses, and the History of Israel: The Letter/Spirit Contrast and the Argument from Scripture in 2 Corinthians 3*, Wissenschaftliche Untersuchungen zum Neuen Testament 2/81, Tübingen:

Mohr Siebeck, 1995.

- Hays, Richard B., “Christology and Ethics in Galatians: The Law of Christ”, *Catholic Biblical Quarterly* 49 (1987), 268-290.
- Hays, Richard B., “Crucified with Christ: A Synthesis of the Ideology of 1 and 2 Thessalonians, Philemon, Philippians and Galatians”, Jouette M. Bassler, ed., *Pauline Theology, Volume 1: Thessalonians, Philippians, Galatians, Philemon*, Minneapolis: Fortress, 1991, 227-246.
- Keesmaat, Sylvia C., “Paul and His Story: Exodus and Tradition in Galatians”, *Horizons in Biblical Theology* 18 (1996), 133-168.
- Kim, Sun Wook, “The Wilderness as a Place of the New Exodus in Mark’s Feeding Miracles (Mark 6:31-44 and 8:1-10)”, *Biblical Theology Bulletin* 48 (2018), 62-75.
- Longenecker, Richard N., *Galatians*, Word Biblical Commentary 41, Dallas: Word, 1990.
- Lubani, Sanned, “The Role of the Exodus Motif in 1 Corinthians 10:1-13: An Intertextual Study”, Th.M.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Stellenbosch, 2014.
- Lührmann, Dieter, *Galatians*, O. C. Dean, Jr., trans., Continental Commentaries, Minneapolis: Fortress, 1992.
- Martínez, Florentino García, ed., *The Dead Sea Scrolls Translated: The Qumran Texts in English*, Wilfred G. E. Watson, trans., 2nd ed., Leiden: E.J. Brill, 1996.
- Martyn, J. Louis, “Apocalyptic Antinomies in Paul’s Letter To the Galatians”, *New Testament Studies* 31 (1985), 410-425.
- Martyn, J. Louis, “Events in Galatia: Modified Covenantal Nomism versus God’s Invasion of the Cosmos in the Singular Gospel: A Response to J. D. G. Dunn and B. R. Gaventa”, Jouette M. Bassler, ed., *Pauline Theology, Volume 1: Thessalonians, Philippians, Galatians, Philemon*, Minneapolis: Fortress, 1991, 160-179.
- Martyn, J. Louis, *Galatian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nchor Yale Bible 33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8.
- Mauser, Ulrich W., *Christ in the Wilderness: The Wilderness Theme in the Second Gospel and Its Basis in the Biblical Tradition*, Studies in Biblical Theology 39, London: SCM, 1963.
- McCown, Chester Charlton, “The scene of John's Ministry and Its Relation to the Purpose and Outcome of His Mission”,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59

(1940), 113-131.

- Meeks, Wayne, “‘And Rose up to Play’: Midrash and Paraenesis in 1 Corinthians 10:1-22”,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16 (1982), 64-78.
- Mussner, F., *Der Galaterbrief*, 5th ed., Herders theologischer Kommentar zum Neuen Testament 9, Freiburg: Herder, 1988.
- Pao, David W., *Acts and the Isaianic New Exodus*, Wissenschaftliche Untersuchungen zum Neuen Testament 2/130, Tübingen: Mohr Siebeck, 2000.
- Rhoads, David, Dewey, Joanna, and Michie, Donald, *Mark as Story: An Introduction to the Narrative of a Gospel*, 2nd ed.,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1999.
- Smit, J., “Do Not Be Idolaters’: Paul’s Rhetoric in First Corinthians 10:1-22”, *Novum Testamentum* 39 (1997), 40-53.
- Stegner, William Richard, “Wilderness and Testing in the Scrolls and in Matthew 4:1-11”, *Biblical Research* 12 (1967), 18-27.
- Watts, Rikki E., *Isaiah’s New Exodus and Mark*, Wissenschaftliche Untersuchungen zum Neuen Testament 2/88, Tübingen: J. C. B. Mohr, 1997.
- Wilson, Todd A., “Wilderness Apostasy and Paul’s Portrayal of the Crisis in Galatians”, *New Testament Studies* 50 (2004), 550-569.
- Works, Carla Swafford, *The Church in the Wilderness: Paul’s Use of Exodus Traditions in 1 Corinthians*, Wissenschaftliche Untersuchungen zum Neuen Testamen 2/379, Tübingen: Mohr Siebeck, 2014.

<Abstract>

**The Churches of Galatia in Crisis and Wanderings
in the Wilderness:**

The Wilderness as the Narrative Location of the Churches in Galatia

Sun Wook Kim
(Anyang University)

The word “wilderness” never appears in Galatians. In Galatians, however, images and themes from exodus emerge in several places, and some of them contain the implications of the wilderness. Paul makes an analogy between the Israelites in exodus and the churches in Galatia. As the Israelites who escaped from Egypt complained in the wilderness and attempted to return to Egypt albeit becoming slaves, the Galatians were likewise in that they heard the gospel preached by Paul and had faith but then followed the instructions of false teachers and degraded to becoming slaves of the law. Paul looks upon the serious crisis of the Galatians by recalling the Israelites who rebelled in the wilderness. In Paul’s mind, the churches in Galatia are straying like the people of Israel who wandered in the wilderness as they try to follow a different gospel. The narrative location of Galatians therefore is the wilderness.

In this paper, I discover the images and themes of exodus that reflect the wilderness in Galatians, and explore the state of crisis the churches of Galatia were in by comparing it with Israel’s wanderings in the wilderness. In doing so, I present the theological meanings of the wilderness in Galatians. First, I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wilderness through the generations. The wilderness has both positive and negative characteristics, namely as a place of test and hope. In the Qumran Literature and the Gospels, the wilderness serves not just as a background but also as the subject of fulfillment in the eschatological and typological dimensions. Paul however presents the wilderness as a place of warning and lesson in connection with wilderness wanderings of the Israelites.

The churches of Galatia show the apostasy of abandoning the gospel preached by Paul by following a different gospel, just as the people of Israel apostatized

by serving the golden calf in the wilderness. The Israelites who complained about having no food or water in the wilderness tried to go back to Egypt, which meant that they would become slaves of Egypt. Likewise, the churches of Galatia are discarding Paul's teachings and following the false teachers' instructions, which implies that they will become slaves of the law. However, as the Israelites desired for the promised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the churches of Galatia should long for the inheritance of the kingdom of God. In addition, as in the parable of Hagar and Sarah, the churches of Galatia which belong to "Mount Sinai in Arabia" and "the present Jerusalem" should not remain in the wilderness but receive the inheritance of the kingdom of God by belonging to "the Jerusalem above". In other words, the Galatians must leave the wilderness and enter the promised land. To the churches of Galatia that are narratively located in the wilderness, Paul warns that they must not go back to being slaves of the law by following the teachings of false teachers. At the same time, he urges that they should go ahead with the hope of the promised inheritance according to the gospel of liberty.